

“불상 반환 신중해야”

日 원정 절도단이 훔친 국보급 신라·고려 불상
 조계종, 부석사 등 성명 발표... 정부는 유보적 입장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海神神社)와 간논지(觀音寺)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월 29일 국내에서 회수되며 반환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월 6일 일본 후쿠오카 발 여객선의 화물을 검색하는 부산항 통관실에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불상 2점이 올라왔다. 이 화물들은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에 보내졌으며 감정관실은 곧 '100년이 안된 위조 골동품'으로 판단해 반입을 허가했다. 통관을 거친 이 골동품들은 이내 한국에서 중적을 감했다.

2달 뒤인 12월 한국경찰과 문화재청은 일본정부로부터 수사 요구를 받는다. 이 골동품들이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라는 것. 불상 중 하나는 8세기 경 통일신라 불상으로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이었으며 또 한 불상은 고려 말 14세기 제작된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관음보살좌상이었다. 이중 간논지에 있던 관음보살좌상은 내부 발원문에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학계는 반환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사는 하겠지만 국제법상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는 1월 31일 성명을 통해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



지난해 10월 일본 쓰시마의 신사와 절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에 반입된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좌)과 신라금동여래입상(우). 부석사 관음상의 경우 출처가 분명해 반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산 지역 왜구 침범 잦아
 학계 약탈 가능성에 '무게'
 불상 환수 움직임도 일어
 日, 선의취득 증거 제시해야

러시대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성보"라며 "성보의 반환여부는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산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석사 신도회는 앞선 30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일본에 의해) 부당하게 강탈당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간 유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

이 안타깝다"며 부석사 반환을 촉구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서산 지역은 당시 왜구들의 약탈이 심했던 곳"이라며 "1375년 인근 관측사 등이 왜구에 의해 불탄 기록이 있는 등 약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약탈된 문화재라면 의당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며 "일본 측이 먼저 반입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지역민들도 부석사에 불상이 반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불상에 대해 부석사와 서산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환수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면에 계속)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함께 말춤... 장애의 벽도 넘다

평창에서 열린 '2013 동계 스페셜 올림픽'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각국 대표선수단이 한국의 산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월정사에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각국 선수단을 위한 '호스트 타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월정사

중앙신도회 조직정비 新舊갈등 표면화

전임 사업 잇달아 축소... “소통 필요” 목소리 높아

조계종 중앙신도회 새 집행부가 추진하는 조직 재정비 사업에 신규 간 불협화음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2013년 산재된 조직을 재정비하고 역할이 중첩된 단체를 하나로 묶어 신도회의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신도회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유사 법인을 통합한다는 것. 조계종 포교원도 신년계획을 통해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신도단체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 속에 전 집행부가 진행하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행부가 진행하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단법인 연우(이사장 구자선)가 운영하는 연우치과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진료를 중단했다. 현재 연우치과는 폐쇄된 상태로 '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의와 관계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는 공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한신 중앙신도회 사무처장은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한 의사가 2개 병원을 운영할 수 없

는 등 문제가 있어 연우 이사회에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중앙신도회 산하 법인인 불교인재원은 법인 통합 건으로 중앙신도회와 결리려온 관계다. 한 관계자는 "(사)남마다좋은날과 통합 문제로 지난해 11월 사무실 문을 닫고 벽을 부수고 하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중앙신도회를 고소하기도 한 불교인재원은 불투명한 2013년 사업으로 10여 차례 기획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순례 행사를 4차례로 축소할 계획이다.

불자 교수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교수자문단도 매끄럽지 못하다. 불자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와 사업과 활동영역이 중첩됨에도 전혀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포교 일선 관계자들은 신규 간 소통이 이번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지적한다. 종책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진행 사업들을 원만하게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불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 봉사, 대불런 지원 등 활동영역이 중첩됨에도 자문단 발족에도 협의 과정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원만히 진행해야 새 집행부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반입 불상 관계법령 어떻게 되나?

관련법에서는 자국문화재일지라도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재 한국이 불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히 반입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에서는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

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불법반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에 따르면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목록품목에 수록됨이 문서로 기록돼 있을 경우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표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주요 포교·신행단체 연합 행사 열겠다”

자승 스님, 군중교구 예비역 장성 신년 인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연내 중단 주요 신행·포교단체 간부들이 참여하는 연합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1월 28일 군중교구 예비역 장성들의 신년 인사에서 "종단 내에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국회 정각회, 정와대 불자회, 대한불교 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주요 신행·포교단체가 있다"며 "이들 단체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 등을 주제로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려 한다. 예

비역 장성들의 활발한 참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박 3일 일정이 어렵다면 1박 2일이라도 진행할 것"이라며 "각 불교 단체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군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한국불교 근교교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지난해 논산 훈련소 군법당 신축이라는 어려운 불사를 잘 마무리했다.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신년인사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예비역 불자회 임원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조남진 예비역 불자회장(前 교육사 교리부장·소장)은 "예비역 불자회에는 뛰어난 군 경력자들이 많다"며 "기존에는 육군 본부 내 원광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부산, 원주, 대구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926호 INDEX

종합	2·3
동국대 재가이사 선임 갈등 진각종 통리원장 기자회견 대불런 50주년 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포교원 신년 기자회견	
시방세계 지관 스님 1주기 선양사업	5
신행	6
한마음선원 전국청년연합수련회 금강경독송회 한국문화 알리기	
화엄만다라 니르바나 강행진 단장	16·17

도서관의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054)261-2231



개정증보

달라이라마가 마음을 밝힌다

김재웅 지음
384면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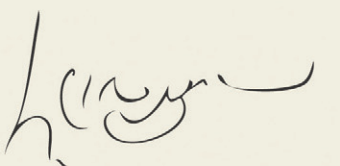
24년 만에 개정증보 · 140면 증대!

미국에서 출판 미국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9위!

달라이라마가 서문을 쓰고 추천한 불자들의 수행 필독서!

『달라이라마가 마음을 밝힌다』는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밝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 질병, 기근,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를 추구하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소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티베트 승왕 14대 달라이라마
 Venerable Tenzin Gyatso,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 150만권 발행된 저자의 다른 책 『마음 닦는 법』이 곧 새롭게 출간됩니다.